

KIA vs 두산 “KS 1차전을 잡아라”

내일부터 한국시리즈... 1차전 승리시 우승 확률 75.8%
KIA, 양현종 · 핵터 원투펀치와 타선 최강... 불펜 약점
두산, PO 4경기서 50득점 괴력... 첫 선발 니퍼트 ‘관전’



“한국시리즈 1차전 승리팀이 시리즈를 지배한다.” 25일 오후 6시30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한국시리즈(4선승제) 1차전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는

단기전에서 1차전은 중요하다. 기선을 제압하면 팀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시 우승 확률은 75.8%(33차례 중 25회)에 달한다.

KIA는 시즌 내내 1위를 달릴 정도로 안정된 전력을 과시했다. 시즌 막판 두산에 1위 자리를 위협받기도 했지만 힘으로 추격을 따돌렸다.

지난 2009년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KIA는 8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석권을 노린다.

KIA의 가장 큰 강점은 원투펀치 양현종(20승6패 평균자책점 3.44)과 핵터 노에시(20승5패 평균자책점 3.48)의 존재다. 이들은 올해 나란히 20승 고지에 오르며 최고 투수 자리를 놓고 다투었다.

단기전에서 강력한 선발투수의 존재는 시리즈 판도를 좌우한다.

양현종은 올해 두산전 2경기에 등판해 1승1패 평균자책점 6.17을 기록했다. 핵터는 두산전 5경기에 나와 3승1패 평균자책점 4.06을 자랑한다.

타선은 최강이다. 올해 KIA는 0.302의 팀타율을 기록했다. 1부터 9번까지 화려한 타격을 자랑했다.

타격왕 김선빈(0.370)을 필두로 3할 타자만 7명이 된다. 나지완과 로저 버나디나(이상 27홈런)를 비롯해 20홈런 이상 때려낸 타자도 5명이다.

약점은 있다. 시즌 내내 지적돼온 불펜이다. KIA의 불펜 평균자책점은 5.71로 높다. 불펜진의 방화판 아니었다면 더욱 쉽게 1위를 차지했을 지도 모른다.

공정적인 점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3주 간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다.

두산은 올해 KIA와의 상대전적에서는 8승1무7패로 앞선다. KIA를 상대로 상대전적에서 앞선 팀은 두산 밖에 없다.

두산은 플레이오프에서 특유의 막강한 타선을 앞세워 NC 다이노스를 꺾고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랐다.

분위기가 한껏 오른 두산은 한국시리즈 3연패에 도전한다.

두산 타자들은 플레이오프에서 괴력을 선보였다.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무려 50득점을 기록했다. 팀타율은 0.365로 높았다.

오재일(5홈런)과 김재환(3홈런) 등 두산의 간판타자들은 무려 12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장타로 연결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내주고도 내리 3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더스틴 니퍼트, 장원준 등 두산이 자랑하는 선발진이 다소 주춤했지만 불펜진에서 함덕주가 눈부신 호투로 선발진의 부진을 메웠다.

1차전 선발이 유력한 니퍼트가 과연 과거의 위용을 찾을 수 있을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올해 니퍼트는 KIA전 4경기에 선발 등판해 1승3패 평균자책점 9.00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장원준은 4경기에서 4승 무패 평균자책점 2.84로 KIA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 축구의 추락... 중국에도 밀린다

아시아 정상급 기량 뽐내던 호랑이... FIFA랭킹 62위로 추락

아시아의 호랑이.

그동안 한국 축구를 대변했던 말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제외하면 세계무대에서 힘을 쓴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만은 늘 정상급 기량을 뽐냈다.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도 우리를 부러워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칭호를 쓰기가 몹시 어색해졌다. 정확히 말하면 부끄러워졌다. 최강은 커녕 3~4위권 유지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늘 우리 아래로 여겨던 중국에도 밀리는 처지가 됐다. 한국 축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 아래 한국

2017년 10월은 한국 축구사에 쓰러린 아픔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은 10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9월(51위)보다 11계단이나 떨어진 62위로 추락했다. 야심차게 떠났던 유럽 원정 2연전 대패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한국은 지난 7일 러시아(9월 기준 랭킹 64위)와의 평가전에서 2-4로 패했다. 초반 수비 붕괴로 연속골을 헌납하면서 일찌감치 승부가 갈랐다. 후반 막판 권경원(대전 한화)과 지동원(아우크스 부르크)이 두 골을 넣었지만 큰 위기가 되진 못했다.

사흘 뒤 모로코전에서는 러시아의 무기력함이 고스란히 재연됐다. 선수들은 모로코 선수들의 개인기에 속절없이 당했다.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드리블 돌파를 막지 못해 공간을 헌납했고 적극적인 볼싸움조차 시도하지 않으면서 박스 안에서의 침착이라는 굴욕적인 장면까지 지켜야 했다. 결과는 1-3 패배. 심지어 이날 미주한 모로코는 정예멤버도 아니었다. 한국과 만나기 이틀 전 가봉과 2018 러시아월드컵 아프리카 최종예선전을 치른 모로코는 사실상 2진급들로 한국 수비진을 허물었다.

올해를 37위로 시작한 한국은 달이 바뀔수록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란이 34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호주가 43위, 일본이 44위에 올랐다. 아시아 4위는 우라가 아닌 월드컵 진출 조차 하지 못한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달보다 5계단 오른 57위를 기록했다. 중국을 추월한 것은 FIFA가 랭킹 산정을 시작한 1993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월드컵 '죽음의 조' 가능성도 제기

FIFA 랭킹의 추락은 내년 러시아월드컵 본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FIFA는 러시아 대회부터 새로운 조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대륙별 포드(그룹)를 분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FIFA 랭킹순으로 그룹을 묶는다. 그 기준이 바로 10월 랭킹이다. FIFA는 10월 랭킹순으로 32개 참가국을 1~4번 포트로 나눈다. 한 포트에는 8개국이 속하며 유럽을 제외한 같은 대륙의 국가가 한 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은 10월 랭킹 추락으로 4포트 진입이 확실시 됐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23개국 중 랭킹이 한국보다 낮은 팀은 사우디아라비아(63위), 러시아(65위) 뿐이다. 이 중 러시아는 개최국 자격으로 1번 포트에 포함된다. 만일 3번 포트에 들어갔다면 4번 포트팀을 상대로 1승을 노렸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타 팀들의 유력한 1승 제물이다. 역대 최악의 '죽음의 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톱시드는 개최국 러시아, 독일(1위), 브라질(2위), 포르투갈(3위), 아르헨티나(4위), 벨기에(5위), 폴란드(6위), 프랑스(7위)로 확정됐다. FIFA 랭킹 관리에 실패한 무적함대 스페인(8위)과 축구중가 잉글랜드(12위)는 2번 포트로 밀려났다. 스웨덴과의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15위) 역시 2번 포트에 해당한다. 사실상 톱시드나 다름없는 전력을 자랑하는 스페인, 잉글랜드와 한 조에 속한다면 16강 진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남은 기간은 8개월, 시간이 없다

최종예선에서의 무기력한 경기력과 헝가리 논란, 여기에 거스 히딩크 감독 부임설 등 연이은 악재로 거센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축구대표팀이지만 어쨌든 월드컵은 치러야 한다. 유럽 원정에서의 반전 실패로 공지에 몰리면서 당장 안방에서 치를 11월 A매치 2연전이 중요해졌다. 본선에 대비한 실험과 함께 승리로 분위기를까지 바꿔야 한다.

가장 손질이 시급한 포지션은 역시 수비다. 신 감독은 FIFA U-20 월드컵과 올림픽대표팀을 거치면서 공격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수비에서는 큰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다. 유럽 원정에서 실험한 변형 스리백도 실패로 귀결됐다. 변형 스리백은 센터백 중 한 명이 상황에 따라 미드필드와 수비를 오가는 이 전술은 스리백과 포백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짧은 연습 기간 탓인지 선수들은 전술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월드컵까지 남은 기간은 8개월 뿐이다. 실질적으로 손발을 맞춰볼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다. 대표팀은 11월 평가전을 시작으로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AAFF) 동아시아컵, 1월 해외 전지훈련, 3월 A매치를 소화할 예정이다. 12월과 1월에는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정에 멤버가 모두 모여 조직력을 다듬을 기회는 11월과 내년 3월 두 차례 뿐이다. 신 감독은 11월 A매치에서 패배를 경험한 뒤 남은 기간 조직력 극대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신 감독은 "11월부터는 수비가 중심이 돼야 한다. 소속팀 경기를 뛰면서, 우리 팀에서도 희생할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겠다. 수비가 단단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 월드컵에서 우리보다 못하는 팀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월드컵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리그 첫 골’ 손흥민 “오랜만에 넣었네요”

EPL 9라운드 리버풀전 첫 득점... 4-1 승리

9경기 만에 2017~201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마수걸이 골을 터뜨린 손흥민(25·도르트문트)이 “오랜만에 리그에서 골을 넣었다”며 수줍게 웃었다.

손흥민은 22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17~2018 EPL 9라운드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12분 첫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14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었다. 올 시즌 EPL 득점은 이날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역습 기회에서 해리 케인의 내준 공을 원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케인이 공을 잡았을 당시 수비수에게 위치상 뒤져 있었지만 폭발적인 스피드로 급세 따라잡았다.

손흥민은 구단 트위터를 통해 “해리 케인이 좋은 패스를 줘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면서 “이겨서 기분이 좋다. 완벽한 오후”라고 전했다.

도르트문트 리버풀을 4-1로 제압하고 리그 3위로 올라섰다.

도르트문트 홈구장인 사용 중인 웸블리 스타디움에는 무려 8만827명이 몰려들어 역대 EPL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은 2007년 3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블랙번전에서 세운 7만 6098명이다.

“팬들이 없었으면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손흥민은 “기록을 세운(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감사



의 말을 전했다. 뉴스

신태용, K리그 관전 ‘새판짜고 11월엔 달라질까’



위기에 빠진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11월엔 웃을 수 있을까. 최근 경기력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신태용 감독은 다음달 국내에서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유럽 원정 2연전(러시아·모로코)을 마치고 돌아온 신 감독은 지난 주말 K리그 경기장을 찾았다.

지난 21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슈퍼매치’를 관전했고 다음날에는

춘천으로 옮겨 강원FC와 전북 현대의 경기를 지켜봤다.

유럽 원정 2연전(2패)을 졸전으로 끝낸 신 감독은 축구팬들의 사면여론을 온 몸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정봉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 감독의 재신임을 강조했다.

내달 10일 콜롬비아 · 14일 세르비아와 A매치
부임 후 4경기 2무2패... 수비라인 재정비 시급
김민재 대체 선수로 이재성 · 오반석 등 거론

이 같은 축구협회의 믿음에 이제는 신 감독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한국은 11월10일 콜롬비아(수원월드컵경기장), 14일 세르비아(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와 평가전을 치른다.

신태용 감독은 부임 후 4경기서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2무2패라는 초라한 성적 기록 중이다.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

선 2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로 우여곡절 끝에 본선행을 이뤄냈지만 전 원 해외파로 구성된 유럽원정 2연전에서는 참담할 정도의 경기력으로 패했다.

신 감독은 11월 A매치와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컵 대회를 앞두고 있다.

11월 두 번의 A매치의 경우 해외파와 국내파의 조합이 가능하지만 동아시아컵 대회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 소집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해외파를 제외한 국내파로 선수단을 꾸려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 감독 입장에서 당장 다음 달 국내서 열리는 두 번의 평가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수비 라인 재정비가 시

급하다. 아시아최종예선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낸 중앙 수비수 김민재(전 북한)의 자리를 메워야 한다.

김민재는 무릎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시즌 아웃됐다. 현재 신태용은 중국 슈퍼리그 소속 수비수들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신 감독은 K리그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클래식(1부리그) 선두 전북의 이재성과 2위 제주 유나이티드의 오반석, 그리고 FC서울의 황현수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재성과 오반석은 안정된 수비로 팀의 상위권을 이끌고 있다. 올 시즌 데뷔한 황현수 역시 꾸준한 출전 기회를 받으며 성장 중이다. 여기에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사간토스의 ‘듀오’ 김민혁, 정승현 등도 후보군이다.

미드필드에는 한동만 대표팀 부름을 받지 못했던 한국영(강원)의 합류가 점쳐지고 있다. 아시아최종예선 2연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염기훈(수원삼성), 이근호(강원), 이동국(전북)도 다시 한번 신 감독의 부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감독은 오는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11월 A매치 평가전에 나설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한다.

뉴스